



# 톱스타를 연기하는 스타들

서현진·김지석·윤은혜·박시후·송하윤 ... "특별하지만 인간적인 내면 연기에 집중"

밝히는 별처럼 멀게만 보이는 톱스타들을 드라마 속 캐릭터로 만나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최근 유독 톱스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쏟아지는 가운데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스타들이 연기하는 톱스타를 비교해왔다.

◇얼굴이 변하는 톱배우...서현진의 '스타 인사이드'

한순간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얼굴이 변해버리는 톱배우. 심지어 다른 사람 얼굴로 한 달에 일주일씩 살아야 한다.

연재대 중에도 노출될 수 있는 스타로서는 그야말로 곤혹스럽다. 2015년 같은 콘셉트의 동명 영화보다 훨씬 극적인 환경을 갖췄다.

SF영화보다도 더 판타지 같은 소재의 JTBC 월화극 '뷰티 인사이드'에 배우 서현진은 섬세한 연기를 통해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서현진의 연기를 통해 시청자들은 톱스타의 복잡다단한 '인사이드' (inside)를 간접 경험한다.

서현진은 말 못 할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살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한세계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총총하게 그려낸다. 최근에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배우의 길도 다 묻고 떠나려는 모습이 담기면서 목직한 울림도 남겼다.

극 중 서현진의 압도적인 존재감 덕분에 '뷰티 인사이드'는 종영을 앞두고 시청률 5%를 돌파하며 한동안 잠잠했던 JTBC 드라마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랑에만 허당... '본업'으로 돌아온 윤은혜

5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윤은혜는 MBN 수목극 '설렘주의보' 속 톱스타 유정 역을 소화 중이다.

서현진의 한세계가 아름다움과 복잡한 내면을 갖춘 점이 특징이라면, 윤은혜의 유정은 좀 더 가볍고 사랑스럽다. 윤은혜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잘하는 로맨스 코미디로 돌아왔다.

유정 역의 한세계 못지않은 톱스타다. 외국에서 상도 받고, 국제 팬 카페 날짜 회원만 1000만명이다. 작품마다 '대박' 안 하는 광고가 없고 해외 러브콜도 끊이지 않는 그의 유일한 약점은 '사랑'이다.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는 톱배우가 정작 사랑에는 속박이라니, 친근하게 느껴진다. 또 다른 매력의 현실감이다. 특히 이런 매력은 (의상 표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에서 화려하고 도도한 이미지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윤은혜의 연기 덕분에 더욱 살아나는 듯하다.

그는 제작발표회에서 "예전에는 재밌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연기했지만,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힌 만큼, 최근 트렌드인 '과하지 않은 로코'를 선보이기도 한다.

◇있을 법한 사고뭉치 톱스타...섬으로 유배 간 김지석

있을 만하면 터지는 스타들의 사고. 이 유는 유주운전부터 폭행, 사기, 마약까지 천차만별이다.

지난 16일 처음 방송한 tvN 금요극 '톱스타 유백이' 속 유백 역을 맡아 나간다가 음

주 측에서 불응했다가 외판 섬으로 '유백'을 가게 된다. 온라인 연예 기사 면에서 흔히 보는 '자숙'인 셈이다.

아이돌그룹 시리우스의 리더 유백은 SNS 팔로워만 1000만명에 배우와 가수를 병행하며 화려한 삶을 살아왔다. 그랬던 그가 여주목하는 섬에 도착하면서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삶과 마주한다. 안락함을 자랑했던 유백은 모든 것이 느린 섬 체너 김순(전 소민 분) 앞에서 오히려 여유를 잃고 좌충우돌하게 되는데, 김지석은 특유의 코미디 코드를 살려 유백을 인간적으로 그려냈다.

김지석은 제작발표회에서 "모든 인물에게는 걸로 보이는 것 외의 이면이 존재한다 생각한다. 이런 유백의 극과 극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캐릭터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하지만 인간적인 매력 표현하는데 집중"

세 배우 외에도 최근 KBS 2TV '러블리 호러블리'에서 톱스타 유필립으로 분한 박시후, MBN '마성의 기쁨' 속 첫사랑의 아이론에서 100만 안티 연예인으로 전락한 주기쁨을 연기한 송하윤 등 톱스타 캐릭터는 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있을 만하면 나타나는 드라마 속 톱스타 캐릭터는 특별하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로 관객극장에 자리 잡았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18일 "같은 톱스타의 인간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집중하는 듯하다"며 "SNS의 발달, 관찰 예능의 범람으로 스타는 더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중훈·신세경 "국경없는 포차"서 재밌게 놀다왔어요

올리브-tvN 내일 첫방송

올리브와 tvN은 배우 박중훈과 신세경의 첫 예능 고정 출연으로 관심을 끈 '국경없는 포차' (사진)를 오는 21일 밤 11시에 처음 방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경없는 포차'는 스타들이 외국에 한국 정서가 듬뿍 묻어나는 포장마차를 차리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포차의 정을 나누는 내용이다.

박중훈과 신세경 외에도 배우 이이경, 래퍼 마이크로닷, 방송인 안정환, 샘 오취리, 에이핑크 보미 등이 이미 프랑스 파리와 도빌, 덴마크 코펜하겐 등 3개 도시에서 촬영을 마쳤다.

이날 열린 제작발표회에서는 최근 외국에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포맷의 예능이 흥수를 이루는 가운데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박경덕 PD는 "새로운 출연자들의 매력 (기존 예능들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며 "포장마차 세계일주"라는 콘셉트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분들과 하는 데 집중했다. 또 음식보



다는 포장마차라는 공간적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훈은 "카메라가 100대쯤 있고 24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재밌으면서도 스트레스가 있었다"면서도 "멤버들과 유대감이 강화되고 나서부터는 즐거웠다. 포장마차 영업이라 신적적으로 힘들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아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게 찍었다"고 말했다.

신세경 역시 "총괄셰프 역이었는데 익숙해지지 않아서 버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주방을 잘 운영했다"며 "불편함을 느낄 새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흘러갔다. 특히 박중훈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해진, 소방관들과 특별한 인연

화재안전조사 홍보영상 출연

배우 박해진(사진)이 화재안전특별조사 홍보영상에 출연해 소방관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간다.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는 박해진이 이달 말 조중목 소방청장과 함께 화재안전특별조사 광고를 촬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화재안전 백년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간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 건물의 화재위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화재안전특별

조사를 대중에 알리고자 기획됐다.

박해진은 영상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조사로 인해 국민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영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TV와 극장광고에 이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BS SNS에도 공개된다.

박해진은 2016년 소방관 아버지를 둔 팬과의 인연으로 소방관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접한 후 꾸준한 소방관 지원, 기부 활동을 했다. 이에 지난 9일 소방의 날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2018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20 UHD 스페이스 강원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2018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1대 100(재)	15 차중우돌 만국 유망기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고향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2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50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최고의 이혼(재)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9]	00 KBS 뉴스 9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솔밭 김제동	10 불불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2018 TV는 사랑을 싣고(재) 50 KBS 결자차큐멘터리(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담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실표를 찾아서, 태극 북부 2부 무릉도원 그들이 사는 세상〉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단풍에 취하다 2부 별에서 온 남군님〉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	〈불멸의 진시황 제1부〉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 맑은국과 차돌가지찜)	16:45 당동명 유치원1~2	24:50 한국영화특선 〈보통사람〉
	17:15 마사와 곰	

### 11월 20일 (음 10월 13일 丙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p> <p>36년생 궁극적으로는 이를 것이다. 48년생 취약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니라. 60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72년생 면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1, 94</p> <p><b>丑</b></p> <p>37년생 과신한다면 가장 믿었던 이로부터 이용당할 수도 있다. 49년생 양호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로움이 보인다. 61년생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85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1, 45</p> <p><b>寅</b></p> <p>38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50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62년생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명예나 재물이 스스로 따르는 흐름이다. 86년생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64, 59</p> <p><b>卯</b></p> <p>39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51년생 모색하다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63년생 과욕을 버리고 조심으로 돌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 명심하라. 75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7년생 깔끔한 신변 정리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57, 99</p> <p><b>辰</b></p> <p>40년생 허심탄화한 성찰이 절실하다. 52년생 적당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64년생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76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88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31</p> <p><b>巳</b></p> <p>41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53년생 녹슬지 않도록 늘 갈고 닦아야겠다. 65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77년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낫다. 89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46, 00</p>	<p><b>午</b></p> <p>42년생 진원지는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54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66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 78년생 주의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90년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1, 67</p> <p><b>未</b></p> <p>43년생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55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다. 67년생 모습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말라. 79년생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91년생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7, 10</p> <p><b>申</b></p> <p>44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56년생 턱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 길성을 부르리라. 68년생 주러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는 양태이다. 80년생 간단하게 처리하자. 92년생 현대는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7, 43</p> <p><b>酉</b></p> <p>45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57년생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69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81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어라. 93년생 여유는 안정성의 기반이니 넉넉하게 준비해 두라. 행운의 숫자 : 76, 72</p> <p><b>戌</b></p> <p>34년생 김윤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활짝 열어 쫓겨라. 46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리라. 58년생 의지 있다면 실행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기회도 풍부함을 알아. 70년생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82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2, 37</p> <p><b>亥</b></p> <p>35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생 희망적이고 알차게 진행 되리라. 59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해 보라. 83년생 지난날의 공적이 인정되어 호평을 받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56</p>
--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